

◆ 총선 결과 따른 향후 정국 전망

대권고지 향한 새로운 이합집산

제14대 총선의 긴 열전이 끝났다. 비교적 조용히 치러진 선거였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재자 투표 부정선거와 안기부 개입 등으로 일목자 많은 문제를 남겼다.

그러나, 이미 각 당은 열기를 식히고 그 뒷수습에 열심인 모양이다. 특히,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각 당과 민중운동세력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같은 '여소야대'로 재편되었다는 정치구도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각 세력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1. 14대 총선의 몇가지 특징

3월24일 실시된 14대 총선의 결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율은 71.9%로 작년의 지자제 때보다 높은 지자제 시기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60%의 의석수를 획득하려던 민주당은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참패를 당했으며, 민주당은 전국구를 포함하여 100여 석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러한 목표에 거의 육박하는 결과를 얻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20석)을 목표로 한 국민당은 지역구만 24석을 획득하여 이번 총선에서 가장 승리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한편 기존의 보수정치권에 염증을 내는 국민들의 정서에 부응하여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앞당기기 위해 오랜 준비 끝에 참여한 민중당은 1명의 의원에, 2%의 지지율도 얻지 못한 채 결국 당 해산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즉 14대 총선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우선 민주당이 참패했다. 이로써 보수대연합의 일단적인 3당합당의 정치적 효과는 약화되었

다. 둘째, 국민당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대거 진출하였는데, 이는 현대 그룹의 재력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반사이익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세째, 민주당은 야당통합의 결과 지지율이 약간 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영남, 강원에서 한 명의 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해 지역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한편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재야합당의 대대적 승리이다. 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은 재야합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민주당이 보다 개혁적이지 않기를 요구했다. 네째, 60%에도 못미쳤던 91년 지자제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지만, 투표참여율을 높여 주려는 정당들의 노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민주당 노선이 좌절됐다. 정당 해산을 당해야 하는 민주당의 현실은 제도 정치의 벽의 높이를 실감케 하는 것임과 동시에 진보정당운동의 '시기상조'를 실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2.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각 정치세력의 각축전과 기본적 목표

국민당의 성공적 진출, 민주당의 선전, 민주당의 참패 등의 결과가 나타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국은 본격적인 재정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그 결과를 심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물론 각 정치세력마다 기본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실현되는가는 다양한 세력간의 대립과 타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예견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자 하는 민주당 내의 각 계파간의 내분을 보다 분화할 것이다.

우선 민정계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삼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계파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우선적인 문제로 잡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내각제를 추진하려던 민정-공화계의 의도는 김영삼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김영삼이 내각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 후계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에게 차기 대권을 넘겨주기에는 노태우의 인기 이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TK의 이권의 상당부분 잠식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민정계는 김영삼에게 대권이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민정계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당 후보가 경선하여 여권표를 분산시키는 상태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정을 미국은 집요하게 할 것이다.

한편 김영삼의 대응책은 명료하다.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회피하고 다른

'여소야대' 결과, 정국안정 위한 정계개편 움직임 야권 직선제 고수속 진보진영 정당운동 계속 될듯

기회는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에서 개헌 가능한 의원수 2/3의 획득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실시한 계획을 내심 지니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헌 자치권에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내각제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만약 김대중씨가 내각제에 동의한다면 후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다. 총선 결과에 고무된 김대중씨

의 기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에서 개헌 가능한 의원수 2/3의 획득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실시한 계획을 내심 지니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헌 자치권에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내각제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만약 김대중씨가 내각제에 동의한다면 후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다. 총선 결과에 고무된 김대중씨

의 기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에서 개헌 가능한 의원수 2/3의 획득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실시한 계획을 내심 지니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헌 자치권에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내각제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만약 김대중씨가 내각제에 동의한다면 후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다. 총선 결과에 고무된 김대중씨

의 기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에서 개헌 가능한 의원수 2/3의 획득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실시한 계획을 내심 지니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헌 자치권에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내각제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만약 김대중씨가 내각제에 동의한다면 후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다. 총선 결과에 고무된 김대중씨

참 민주의 꽃으로 피워야 할 4·19 정신

이때 2백여명의 경찰대와 함께 대한반공 청년단들이 나타나 난폭한 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자의 발악에도 대학생들의 시위에 발맞추어 10만 이상의 시민들이 시내 곳곳에서 반독재투쟁에 돌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4월혁명은 이승만 독재체제를 무너뜨렸던 것이다.

만약 92년의 4월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

왜 우리는 92년 4월의 요구를 되풀이 야 하는가?

그렇다. 60년과 90년대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회의 다변화 속에서 정권도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것이다. 3.15 부정선거와 지난 3월 24일의 선거의 본질은 같을지, 나타난 선거결과

□4월이 주는 의미

바야흐로 4월이 눈앞에 있다. 피땀 물 들었던 유재봉의 신화와 수유리에 잠든 4.19 열사들의 숨소리가 고동치고 있다. 우리 역사가 어떻게 숨겨진 끈질긴 것이었기에 어느 시인의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어구만큼 그렇게 4월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있어 4월은 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뜨거운 열정이 빛나는, 그래서 더욱 살아있는 4월이 어야 한다.

□3. 24 총선과 4월

전북 무주경찰서가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극비문서를 만들고 총복을 입

되살아오는 4월의 함성

에서도 관청이 비슷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고, 대통령의 처남인 후보가 별관 대낮에 어디에 어긋나는 행동과 선불 공세를 벌이고, 안기부의 직원들이 야당 후보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흑색선전물을 뿌리다 잡혔다. 그리고 육군9사단의 이지문 중위가 폭로한 부재자투표의 부정..... 이렇게 지난 3월24일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얼얼하게 있었다. 92년 선거 결과는 부도덕한 정권에게 주권자의 심판을 내렸다. 3당합당으로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70%를 차지했던 민주당의 의석은 과반수 아래로 떨어졌다 한다. 그

과와 부정선거 과정속의 그 교묘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승만 정권의 급권과 갑질적인 부정선거 양식이 지금에 와서 그 양상을 달리하여 급권과 부정이 공공연히 대중화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공명선거를 자유롭게 외치는 분위기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국을 좀더 자세히 보아야한다. 실제로 공명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언론은 아직 부정선거 시비로 가득차 있으며 민주당은 1백50석의 과반수 의석을 다시 차지하고있다. 선거 직후 민주당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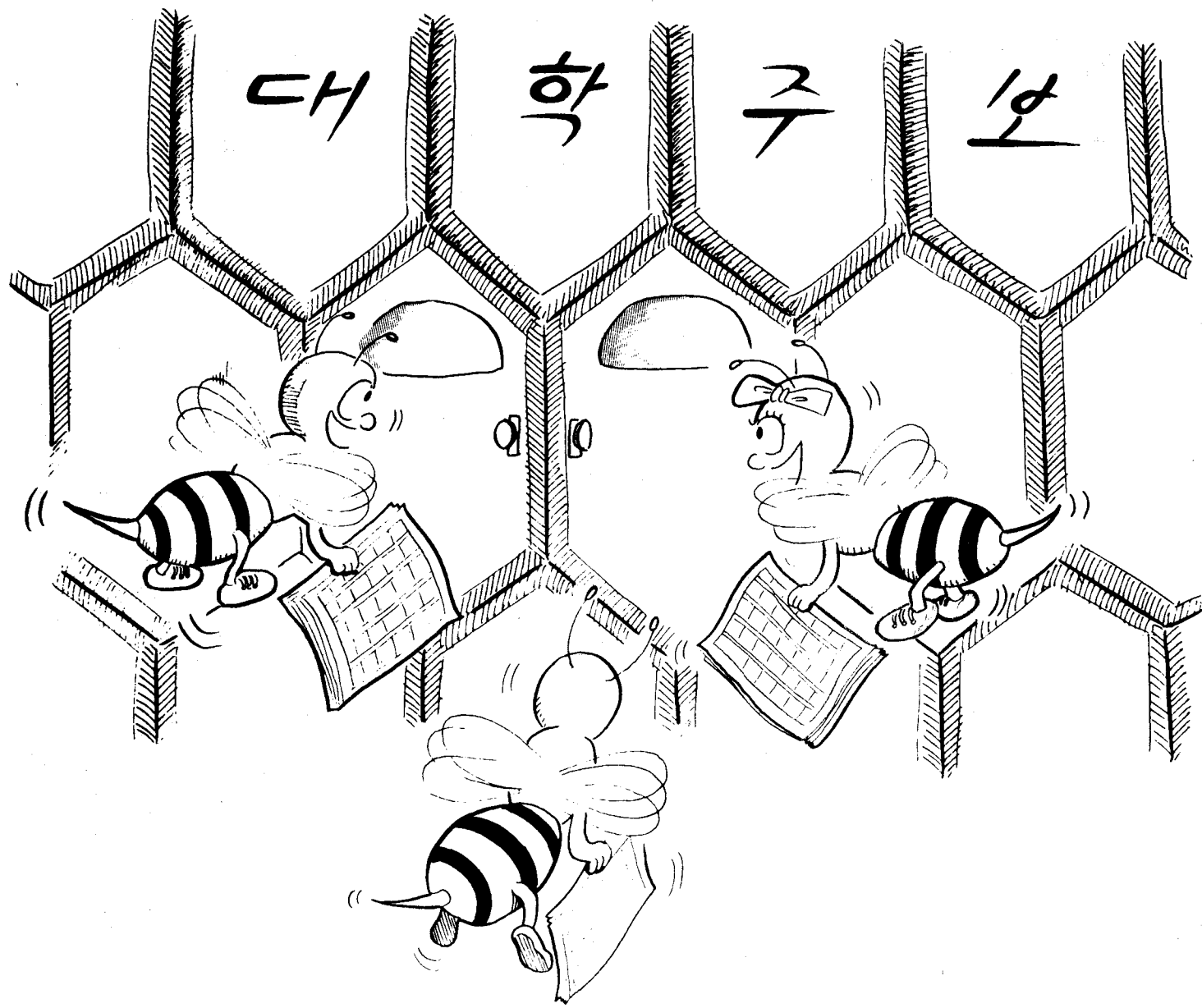
□전통의 계승과 그 발전

60년의 4.19혁명은 미국을 등에 업고 무자비한 탄압과 독재를 일삼는 이승만 정권체제를 민중들이 무너뜨린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 기억의 아득한 속에서 4월을 받들고 있는 듯하다. 우리 역사가 숨쉬고 있는데도 말이

4.3 그리..... 4.19의 열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잊을 수 없는 한 우리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새로운 대안을 정비해야 한다. 우리가 믿어 아 하는 것은 바로 역사가 증명하듯 오직 이땅 주인들의 힘뿐인 것이다.

한주에모

- ▲3월21일:-축색유인물 살포한 안기부직원4명 구속.
- 러시아연방의 타타르 공화국, 엘친의 경고 불구 하고 독립투표 실시.
- 국민은행, 다음달 '1일부터' 무보증신용대출을 확대기로 결정.
- ▲3월22일:-군부 이지문중위, 양심선언 통해 군 부대내에서 갑압적인 부재자투표가 실시되었음을 고백
- 프랑스, 알바니아, 태국에서 실시되는 총선및 지방선거에 국제적 관심 집중
- ▲3월23일:-총선을 하루 앞두고 전국 은행창구에서 통치권 대거인출 선거에서의 소비성자금으로 추측.
- 노동부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재조정, 다음달 10 일 발표기로.
- ▲3월24일:-제14대 총선실시, 투표율 71.9%로 사상최저.
- 민자 1백 16석, 민주 75석, 국민 24석 차지, 무소속은 21석으로 여소야대 출현.
- 민중당, 지역구에서 당선자 못내고 당존속을 위한 2%의 득표를 획득에도 실패, 노조의 정치세력화 못 이룬것이 실패의 한요인으로 지적.
- 국방부 이지문중위 양심선언 보도한 한겨레신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방침.
- ▲3월25일:-무소속 이승무씨 민주당 입당 선언. 민주당 과반수인 150의석 확보.
- 민주당 노원을(임재정), 영동포를(김민식)등 선거결과 불복 소송제기.
- 서초동 꽃마을에 또 불, 비닐하우스 98채 불태워.
- 서울 경찰청, 민주당 비판하는 유인물 뿌린 방송대 휴학생 구속.
- ▲3월26일:-공선협 군부재자투표의 부정행위 진상규명위해 고발장구 설치. 접수 첫날 2백여건의 전화제보 잇따라.
-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지구에서 불법철거자강행하던 철거민들이 항의하는 주민 폭행.
- 회각구 부총리, 정주영 국민당대표가 현대와의 관계 정상화것을 재차 촉구.
- 강기훈씨의 함소심2차공판에서 김기철씨의 친구, 유서 글씨는 김씨 필적이라고 증언.
- ▲3월27일:-민주당과 국민당, 군부재자 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 노·김정외대 회담에서 5월전당대회 개최와 당무 일체를 김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에 합의.
-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원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 본격 생산.
- 강기훈씨 함소심 담담재판부 국과수 문서분석실에서 강씨의 필적감정 검증.



“여러분이 모아온 꿀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글은 썼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

곧장 대학주보사로 찾아오십시오. 당신을 반겨맞는 대학주보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멋진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학주보는 여러분의 삶이 진솔하게 담긴 하나하나의 생각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 학 주 보 사

대학주보 기획광고- 후고를 기다립니다